

총여학생회 - 여성 자치단체 한마당(가칭) 기획안

보내는 기쁨 : 여/성/주/의 제10대 총여학생회

받는 즐거움 : 여성관련 자치단체, 모임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 관심있는 개인

0. 들어가며

이번 총회의 의의는 산발적으로 존재해왔던 여성 관련 모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연대의 지점들을 찾아나간다는 데에 의미가 있을 것이다.

사실, 연세대 내에 여성학/운동 소모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학회, 소모임 내지는 위원회 형식의 모임들이 있었음에도 그것들이 가시화되지 않은채 생겼다가 소멸하던 상황이었다. 결과적으로 여성 운동에 대한 담론이 효과적으로 순환할 수 있는 통로가 형성되지 못했으며 논의들이 자신의 모임 내로만 '흡수'되어 버리지 않았는가.

자치단체들의 물질적 상황이 열악한 데다가, 어느 모임의 문제의식이 발전하기 위해 필수적인 자극을 서로 줄 수 없었다는 것도 자치단체들이 겪어야 하는 어려움의 원인이자 결과이다. 함께 할 지점을 찾는다는 것은 서로를 위로해주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자극과 비판을 하는 과정일 것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각 모임이 자기만의 독자적인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고 전문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러한 문제의식에 동의하지 않는 모임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방학 동안 진행하려던 연석회의가 지지부진해졌다. 방학 동안 진행되었던 회의 테이블에 대한 평가를 통해 그 당시에 부족했던 부분들을 짚어내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자리가 이번 총여학생회-자치단체 총회가 되었으면 한다.

1. 방학 기간 진행되었던 자치단체 연석회의에 대한 평가

방학 동안 몇 차례, 총여학생회와 약 5개의 자치단체들이 연석회의를 진행했었다. 그러나 몇 번 모이고 나서는 회의가 지지부진해졌다. 이것은 방학이라는 객관적인 상황 때문이면서도 또한 총여학생회나 각 단체들의 구체적인 요구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에 더욱 큰 이유가 있었다고 본다. 즉, '모인다'라는 추상적인 공유지점만 있을 뿐, 자치단체들이 처해있는 구체적인 상황과 요구들이 회의의 의미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모인다'라는 것 자체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 그러나 지속적인 모임을 갖기에는 너무나 큰 '대의명분'이었다.

총회는 자치단체들의 보다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고민이나 문제의식, 요구들을 서로 공유하고 서로에게 힘과 도움이 되는 자리였으면 한다.

2. 당일 프로그램

① "노래가사 바꿔부르기" - 여성주의 문화를 실험하는 사람들 '옴'

② 총여학생회 및 각 자치단체들의 소개

③ 총여학생회 총론 및 각 국 사업기획안 발표 및 예산안

▶ 총여학생회의 1년 사업기획안을 간략하게 얘기하면서 앞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본다. 또한 총여학생회 예산 및 3월 결산을 보고하면서 자치단체들에게 지원할 예산 책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④ 자치단체들의 발제

▶ 여성 자치 단체들의 정체성과 전문화에 대하여

여성학을 공부하고 싶은 마음에서 소박하게 시작하는 여성자치단체들, 소모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시작 자체에 별 문제는 없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부터다. 여성문제가 워낙 광범위하고 일상에서의 치밀한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볼 때 그리고 우리 안에서 워낙에 '여성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각 훈련 자체가 되어 있지 않다고 볼 때 누구나 할 수 있는 여성학 세미나에서 조금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 이는 성급한 실천에의 요구라기 보다 여성적 시각 훈련, 여성적 문화 형성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들에 대한 토론과 가능한 실험들의 구체적인 아이디어도 함께 이야기해 보면 좋을 듯.

▶ 각 모임의 물리적 상황(재정적, 공간적) 또는 위상

현재 자치단체들은 서로 각기 다른 위상이다. 그리고 단대 학생회와의 관계 문제도 많이 발생한다. 위상의 불분명함 내지는 위상 정립의 어려움 등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총학생회가 어떠한 부분에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이야기해보는 자리.

⑤ 지속적인 연석회의의 필요성

▶ 방학 동안 진행했던(?) 연석회의의 애초의 의미들을 다시 한 번 상기해보고 지속적인 연석회의의 필요성 여부를 논의해본다. 만약 그 필요성이 공유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만들기.

⑥ 뒷풀이!!

▶ 각 모임 대표들뿐만 아니라 성원들끼리도 친해질 수 있는 서로에 대해 조금이라고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는 게임(박수게임(가칭))과 함께 술자리를 만들어보자!!

3. 일정

4월 11일(토) 늦은 3시

장소는 논지당(미정)

학내 성폭력근절을 위한 자치규약제정과 여성권 확보를 위한

자치규약제정위원회(가칭)를 제안합니다.

보내는 기쁨: 자치규약제정위원회 준비모임과 여/성/주/의 제10대 총학생회

받는 즐거움: 성폭력 근절을 위한 자치규약제정운동에 관심있는 모든 개인과 단체들

0. 들어가며

신입생 환영회, 뒷풀이, MT에서 뿐아니라 동아리방, 과방, 심지어는 교실에서까지. 이 모든 장소가 성폭력사건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곳이라는 사실은 더 이상 새롭지 않다. 96년도부터 그동안 숨겨져 있던 학내 성폭력 사건이 드러나면서, 학내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는 각 대학의 여성운동조직들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현재는 18개 대학이 결합되어 있는 '학내 성폭력 근절과 여성권 확보를 위한 여성연대회의(이하 여성연대회의)'에 의해서 성폭력 근절을 위한 자치규약제정운동(이하 성폭력 자치규약제정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해 11대 총학생회 선거와 35대 총학생회선거 당시 대부분의 선본에서 성폭력자치규약제정에 대한 공약을 제시했던 것이나 여성연대회의에서 주관한 설문조사에서 성폭력 자치규약제정에 대해 설문에 응했던 남녀 95%이상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을 미루어보아도 학내 전반적으로 성폭력 자치규약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는 조성되어 있다고 평가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성폭력 학칙제정운동의 실물적인 흐름이나 성과는 아직 찾아보기가 힘들다. 학교당국과의 협상을 논외로 치더라도 아직 넘어야 할 벽은 많이 남아 있다. 단순히 성폭력 학칙을 제정하여 성폭력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성폭력 학칙제정운동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다면, 또한 성폭력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거나 '정조'에 대한 침해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사회적 편견과 단절하는 일뿐만 아니라 기존의 학칙과는 다른 자치규약의 제정으로 자치권의 실제적인 의미를 실천하는 일이라 한다면, 성폭력 자치규약제정운동은 대학문화와 학생운동의 총체적인 위기 속에서 큰 의미를 가질 것이며 그만큼 다양한 대중들의 실천을 요구하는 운동일 것이다.

1. 성폭력 자치규약제정운동은 여성운동이며, 대중운동인 동시에 자치운동이다.

성폭력 자치규약제정운동은 성적 자율권 확보를 전제로 하는 운동이다. 여성운동은 성의 차이가 차별과 억압의 근거가 되는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한마디로 여성운동은 여성이라는 집단적 정체성에 기반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러한 점에서 여성의 몸과 성은 이러한 여성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문제설정이 된다. 오랜 기간동안 여성이라는 몸이 언제나 남성의 소유물로, 여성의 인격과 유리된 성애화된 육체로만 읽혀지면서 배제되어 왔기에, 여성의 몸과 성에 대한 주인은 바로

여성자신이라는 관점 속에서 스스로 자신의 몸과 성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확보하는 것은 독자적인 여성의 정체성을 세우는 데 기본이 된다. 또한 성폭력의 문제는 남성 지배적인 구조와 문화를 극단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그러므로 성폭력 자치규약제정운동은 남성 지배적인 권력구조에 문제제기하는 것과 동시에 성적자기결정권확보를 통해 여성권을 확보해나가는 과정이다.

또한 성폭력자치규약제정운동은 대중운동이다. 그동안의 대중운동이 대중에 의한 운동이 아닌 단지 대중을 대상으로 한 관료적, 수직적인 운동으로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 대중과 괴리되어 버린 현실에서 근 몇 년동안 운동의 위기하는 말과 함께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여성운동의 쟁점 또한 대중화되지 못하고 직접적인 대학사회 내의 변혁을 촉발해내지 못하였다. 이러한 시기에 성폭력자치규약제정운동은 그 속에서 중앙집권적 권력과 방식이 아닌 여성주의적 권력과 방식을 실험되고 실현되는 장이 되어야 한다. 새로운 실험들 속에서 이 운동은 소수만의 운동이 아닌 대중과 함께 하는 대중운동으로 발전되어야 하며 그 가능성들을 열어가야 한다.

동시에 성폭력자치규약제정운동은 자치운동이다. 학생자치권 확보라는 테제는 96년도 이후 더욱더 광폭하게 다가오는 자치권 탄압과 대중적 실천없는 구호의 나열 속에서 현재 선언으로만 존재하고 있다. 성폭력자치규약제정은 자치권 확보의 실질적인 흐름이 될 수 있다. 학교에서 제정하고 선포하는 학칙이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제안하고 재정하는 자치규약의 실체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성폭력자치규약제정운동은 대중적 논의에 기반한 공동체 내의 자치규약 재정과 공동체 문화 건설이라는 측면에서 자치운동이다.

2. 성폭력 자치규약제정운동, 이렇게 이루어져야 한다.

성폭력 학칙제정운동의 방향성은 성폭력에 대한 여성적 입장의 새로운 담론으로 여성의 성적 자율권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 구성원의 자율적인 동의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것은 성폭력에 대한 새로운 담론을 대중적인 공유 속에서 서로의 성적 자율권을 존중하고 보장하겠다는 대학사회 구성원들의 자치적인 규약의 의미인 것이다. 성폭력 자치규약제정의 기본적인 전제는 여성의 관점에서 여성의 입장으로 성폭력에 관련한 모든 언어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성폭력에 대한 개념규정, 성적 자율권의 침해여부, 조사과정과 처벌, 예방과 재교육 등에 대한 것들이 여성의 입장으로 존재하여야 한다.

이를 근거로 지속적인 여성적 관점의 담론 형성을 위한 활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대학구성원의 자율적인 동의에 근거한 규약인 자치규약으로서의 학칙제정 의미속에서 대학운영의 민주주의에 대한 제기와 운동이 함께 전개되어야 한다.

또한 실질적인 장치구축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운동이어야 한다. 문제제기의 수준을 넘어서 실물화 시켜내기 위한 다방면의 활동, 즉 전문가와의 연개, 학교당국과의 협상, 학내 자치기구들과의 연대활동 등을 통해 운동을 전개해 나가야한다.

3. 성폭력화치규약제정운동, 그 깃발을 올리자!

-학내 성폭력자치규약제정과 여성권확보를 위한 자치규약제정위원회(가칭)를 제안합니다.

현재 여성연대회의에서 이미 성폭력자치규약의 가안은 완성된 상태이며 전문가의 의뢰를 통해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고 학내 성폭력에 관한 여론형성 또한 어느정도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성폭력자치규약제정운동이 앞에서 언급했듯 많은 의미를 갖는 운동이라 했을 때, 이는 결코 단기간에 마무리되는 일이 아닐 것이며 그러서도 안될 것이다. 성폭력자치규약제정운동은 대중적인 논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뿐 아니라 지속적이며 구체적으로 전개되는 운동이 되어야 할 것이다.

총여학생회에서는 현재 성폭력자치규약제정운동을 실질적으로 펼칠 자치규약제정위원회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자치규약제정위원회는 총여와는 독립된 위상으로 독자적인 활동을 수행할 것이다. 다른 학교와의 연계 속에서 연대 내에서 성폭력 자치규약의 필요성과 자치규약에 대한 선전을 통한 여론화 작업, 성폭력 자치규약을 연대의 상황에 맞도록 변형하는 작업, 성폭력자치규약에 관한 공청회와 토론회 등의 행사 개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 등을 위주로 자치규약제정위원회는 활동할 것이다.

♠ 함께 성폭력자치규약제정운동을 하실 주체(개인이나 단체)를 찾습니다 ♠

-성폭력 자치규약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나 단체는 총여학생회실(361-3645)로 연락주세요.

(연사국에게 문의를)

-4월동안 초동모임을 진행하면서 성폭력 및 자치규약제정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